

보도시점 : 2026. 9. 2.(수) 11:00 이후(9. 3.(목) 조건) / 배포 : 2026. 9. 2.(수)

김해공항 하늘길, 첨단 위성항법 착륙절차로 더 안전해진다

[관련 국정과제] (국정57)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

- 산악지형을 정밀하게 회피하는 첨단 위성항법 착륙절차 9월 3일 첫 시행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윤덕)는 김해공항의 산악지형으로 인한 고질적인 운영 제약을 해소하여 비행안전성을 높이고, 빈번한 복행·회항·결항에 따른 승객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첨단위성항법절차(RNP-AR)*를 오는 9월 3일부터 발효한다고 밝혔다.

* RNP-AR(Required Navigation Performance Authorization Required): 산악지형 등으로 직진 착륙 절차 수립이 어려워(최소정대 거리 미확보) 시계비행에 의존하는 공항에 적용 가능
- 정밀도 높은 위성의 위치정보 활용 + 강화된 조종사 훈련을 통해 사용 가능한 계기비행절차로 김해공항 북측 접근 절차를 수립

- 그간, 김해공항은 돛대산, 신어산 등 북측 산악지형으로 인해 활주로(18방향)에 곧바로 착륙(직진접근)할 수 없어, 조종사가 육안으로 공항을 확인하며 선회하는 방식으로 활주소에 접근하였다.

○ 선회접근은 조종사의 육안 판단에 크게 의존하는 방식으로 조종 부담이 크며, 복행·회항 등 비행안전에 대한 우려와 이용객 불편이 이어져 왔다.

- 이에 국토교통부는 김해공항의 지형적 특성을 극복하고 보다 안정적인 접근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1년 전인 '25년 9월부터 공군 등 관계기관과 기술협의체를 구성하고, 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 관련 기준에 맞춰 해당 절차를 설계하였다.

○ 이렇게 설계한 절차는 항공사와 항공전문가가 참여한 비행시뮬레이터 운영평가를 통해 세부 사항까지 확인하였고, 이후 비행점검기를 활용한 비행검증을 거쳐 절차의 안전성을 최종 검증하였다.

□ 이번 절차가 발효되면 기존에 조종사의 육안 판단에 의존하던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, 위성항법을 기반*으로 사전에 설계된 일정한 경로를 정밀하게 비행하여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게 된다. 실제 운항은 항공사의 자체 운항 준비와 운항당국의 특별 승인을 거쳐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.

* 김해공항 취항 항공기의 59.3%가 RNP-AR 관련 장비 장착(이후 지속 증가 전망) 중이며, RNP-AR 절차가 불가능한 항공기와 운항 준비가 미흡한 항공사를 대상으로 위성기반 시각참조 접근절차(Rnav visual)를 함께 마련

○ 특히 착륙이 가능한 최저 기상조건(시정)이 기존 선회접근 대비 완화되어, 기상을 이유로 한 복행·회항·결항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국토교통부 정채교 항공정책실장은 "김해공항의 북측 접근 항공로는 산악지형으로 인해 오랫동안 조종사의 판단에 따른 시계비행에 의존해 왔으나, 이번에 첨단 위성항법 착륙 절차를 활용해 보다 안전하고 정밀한 하늘길을 마련하게 되었다"면서,

○ "앞으로도 첨단 항행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하늘길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."고 밝혔다.

담당부서 <총괄>	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교통과	책임자	과 장	박준수	(044-201-4294)
		담당자	사무관	박종대	(044-201-4301)
			주무관	김철균	(044-201-4299)
유관기관	항공교통본부 공역총괄과	담당자	과장	이상곤	(053-668-0251)
			주무관	임재경	(053-668-0254)